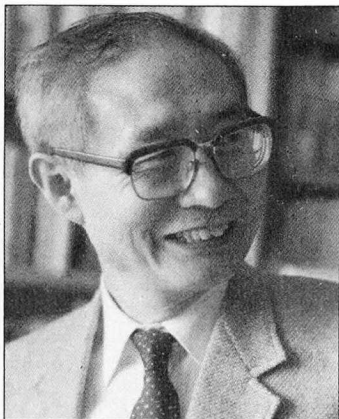


학교교육이 책읽기를 방해한다

교과교육과 독서지도의 긴밀한 연계가 아쉽다

이상섭

연세대 영문과 교수 · 문학평론가



이상섭 교수

얼마 전에 수학 성적이 특출한 고등학교 학생들을 뽑아서 주관식 수학문제를 풀게 했더니 그 중 사분의 일 가량이 0점을 받았고, 전체의 평균도 10점 이하였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 문제를 집요하게 붙잡고 늘어지는 끈기와 집중력을 훈련시키지 않고 한 시간 안에 수십 문제에 대한 정답을 이미 주어진 네개의 답 중에서 골라내는 기술을 가르친 결과라고 한다. 세계대회에 가서 하위권에 들었더니 이른바 '과학왕국'의 목표가 매우 위태롭게 되었다. 수학 교사들은 결국 세계적 관점에서 보면 머리 좋은 학생들을 모아 놓고 0점 맞는 교육을 시키고 있는 셈이다. 고등학교 교육이 단단히 잘못됐다고 지난 수십년 동안 걱정하는 소리가 높았는데, 그 진상이 여지없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유독 수학 교사들만 예외적으로 부끄럽게 되었는가? 국어, 국사, 사회, 과학, 외국어, 예능 과목들은 당당히 세계적 수준과 겨룰 수 있는가? 자신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음운론의 '예문'으로 읽힐 뿐인 「용비어천가」

여기서 다른 과목은 말고 국어만 거론해 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언어교육은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 네 기능이 모두 꼭 같이 중요하지만 특히 읽기와 쓰기는 학교교육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축진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쓰기는 읽은 것이 없어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마치 말하기가 듣기를 제외하고는 습득될 수 없음과 같다. 읽기야말로 중등학교 국어교육의 기본이 된다. 실제로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국어교육은 읽기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의 국어교육은 읽기와는 거의 관계없는 특이성을 나타내고 있다. 국어시험 성적은 반드시 수나 우를 받은 고등학교 졸업장이 대학에 들어와서 책을 읽을 줄 모르는 수준 이하의 학생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마 주관식 읽기능력 시험을 치게 한다면 수험시험에 못지 않게 0점짜리가 수도룩할 것이다.

‘빙’ 소리의 변천과정에 대한 어떤 객관식 古文문제라도 척척 정답을 골라 짤 수 있는 국어 우수생 중에 「용비어천가」를 한번만이라도 읽어본 학생은 전혀 없다고 해도 아마 안 틀릴 것이다. 그들이 읽은 「용비어천가」는 국어교과서에 짧게 인용된 부분일 뿐이고, 그것도 까다로운 15세기 국어의 음운론의 예문으로 읽은 것이지, 한글로 쓴 최초의 시의 하나로 읽은 것이 아니다. 장만영이 ‘자오선’의 동인이 아니었다는 무한히 자질구레한 사실을 암기하고 있는 ‘현대문’의 만점 수험생도 ‘자오선’의 동인이었던 서정주의 많은 시집 중 하나라도 손에 쥐어본 일은 없을 것이다.

박지원의 「열하일기」가 몇년에 씌어졌는지는 달달 따로 외면서도 얼마 길지도 않은 그 책(번역본)을 정작 읽어본 학생은 대학의 국문과 학생까지 포함하여도 극히 드물 것이며, 충무공의 「난중일기」도 번역되어 있지만 읽지 않고서도 충무공을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숭앙한다고 공언하도록 배우는 것이 한국의 학생이다. 춘향이의 이야기는 영화나 텔레비전을 통해서만 알아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일에 대하여 국어교육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광수가 몇년도에 「무정」을 지었다는 사실만 알려주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어교육이다.

그러므로 학력고사는 「왕오천축국전」 「청록집」 「홍」 「한중록」을 읽은 학생에게는 아주 불리할 수밖에 없고, 그 시간에 「30일 돌격 국문학사」 「하이라이트 고문」 「블랙박스 현대문」 같은 수험지도서를 요령껏 따로 외는 수험생이 비할 수 없이 유리하게 된다. 즉 국어교육이 독서를 우리 민족의 귀중한 고전을 읽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국어교육이 독서인 양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판국인데도 당사자들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국어는 그렇게

학교교육의 중추를 이루는 교과서조차

학생들의 독서욕을 자극하는 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현행 교육제도는

책읽기를 방해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퇴계나 율곡이 다만 이름만 남긴 이들이

아니라 길이 빛나는 좋은 글을

남긴 이들임을 확인하고,

그 글들을 스스로 찾아

읽게 만드는 교육이 아쉽다.

가르치는 것이라는 그럴싸한 이유까지 댈 수도 있다.

읽기능력 배양하는 국어교육 돼야

국어교재를 책임지고 만드는 곳은 문교부 편수국이다. 모든 교과서는 300쪽 안팎으로만 지으라고 편수국의 교과서 집필지침이라는 것에 씌어 있다. 다른 과목의 교과서는 모르겠지만 국어교과서는 큰 활자에 군데군데 사진까지 들어간 300쪽짜리 책으로 문법과 한자교육 교재까지 곁하고 있다. 배당시간 수도 가장 많은 국어가 1년 동안 큰글자로 적은 겨우 300쪽 자리 책을 학생들에게 읽혀서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국어는 사회나 과학 과목처럼 특수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과목이 아니라 주로 ‘읽기’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과목인데 300쪽 짜리, 길지도 않은 소설 한권 분량을 1년동안 내내 붙들고 앉게 해서 무슨 읽기능력이 자랄 수 있겠는가?

실상 한국인의 읽기능력은 주로 국민학교 시절에 쉽게 쓴 세계명작들을 읽음으로써 형성된 것이고, 정식 국어교육의 혜택을 받은 것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고등학교 졸업반에 다니는 학생에게 즐겁고도 유익한 책을 읽은 것이 언제인가를 물으면 아마 틀림없이 국민학교 시절이었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때에는 학교 선생님이 이야기책을 읽고 감상문을 써오라고 숙제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중학생이 된 다음에는 반공서적 읽으라는 지겨운 숙제 이외에는 교과서와 참고서 말고 다른 책 읽으라는 주문을 받아본 적이 없다. 국어교과서에 독서를 권하는 글이

버젓이 들어 있지만, 정작 독서를 권장하는 교육과는 상관이 없다.

중등학교의 국어교육이 적극적으로 독서를 ‘금지’하는 교육이 되니까 출판계에서도 수백만의 청소년을 위한 독서물 공급에 완전히 무관심하다.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장사는 안하는 법이다. 다만 타락한 어른들의 몸살 행태를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에게 몰래 가르쳐주는 여고생 잡지 따위만 있을 뿐이다. 중·고등 학생들이 읽을 만하게 한국의 고전과 세계의 고전을 자세하게 해설을 붙인 교육적 독서물은 국어교육 덕분에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교육철학의 확립과 발상의 전환 시급

그러나 올림픽 경기에서 10위권 저 밖으로 밀려나간 여러 나라에서는 국어교육이 주로 자기 나라와 세계의 고전을 읽게 하는 교육으로 되어 있다. 좋은 책 읽기를 교육하지 않는, 오히려 엄격히 금지하는 국어교육이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대학입시제도 때문에 교육을 망쳤다고 간단히 자탄하는 버릇이 들어 있다. 그러나 입학시험이 없어진다면, 국어교육이 정상으로 되어 읽기교육의 효과를 낼 것이란 보장이라도 있는가? 잘못된 입시제도의 폐해가 물론 크지만 그보다도 국어교육이 기본철학이 망가져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잡동사니 같은 토막글들을 300쪽에 모아 놓고 국어교육 시키겠다는 발상부터 고쳐야 한다.

속히 국어는 좋은 우리 글, 이름난 우리 글을 직접 읽게 하는 과목으로 바뀌어야 한다.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의 좋은 생각과 느낌을 잘 써 놓은 글을 직접 대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한국의 인간상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그것은 자기의 인간됨의 각성도 가능케 한다. 그리하여 퇴계와 율곡이 다만 이름만 남긴 이들이 아니라 길이 빛나는 글을 남긴 이들임을 확인하고 스스로 변화를 입는 경험을 가져야 한다.

그런 글을 읽어본 학생들이 학력고사이든 입학시험이든, 학기말시험이든 입사시험이든, 관리선발시험이든 퀴즈대행진에서든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야 우리 국어교육, 나아가서는 우리 교육이 살아날 것이다.